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열거의 방식을, (나)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해학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2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집터나 밭자리를 통해 길운을 바라는 꿈생원이 관심을 보이는 대상이다.
- ② ㉡은 재물을 모은 꿈생원이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은 대상이다.
- ③ ㉢은 재물을 경영하여 부를 증식하려는 꿈생원이 권력가의 권세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 ④ ㉣은 집이나 땅을 중개하여 이문을 취하려는 꿈생원이 흥정 과정에서 겪은 부정적 반응이다.
- ⑤ ㉤은 부자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꿈생원이 부자를 피는 수단이다.

24.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도박과 음주에 빠져 있고, ㉡는 파산의 들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
- ② ㉠은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팔자를 원망하고, ㉢는 분수를 알아 자신의 배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은 혼인을 중매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여 창피를 당하고, ㉣는 과거 시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여 수치를 당한다.
- ④ ㉡는 가뭄에 김을 매지 않아 다른 농부들의 조롱을 받고, ㉢는 한때의 괴로움을 참지 못하여 공명을 이루지 못한다.
- ⑤ ㉡는 김매기를 하여도 작물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는 학문에 힘을 쏟아도 부귀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들의 말을 인용하여 특정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여 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물음에 답하는 인물을 통해 글쓴이가 관찰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④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⑤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논의의 대상을 다른 상황으로 확장하고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당면한 현실에 대응하는 양상에 따라 삶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 요행을 바라면서 책임감 없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가)에서는 당대 규범에서 벗어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에 대한 경계가, (나)에서는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는 자세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고 있다.

- ① (가)의 ‘공것’과 ‘뜯재물’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태도를 알 수 있는 소재이군.
- ② (나)의 ‘비가 내리지 않’아 ‘김을 땀 수가 없’는 것을 보니, 농부들이 농경에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문제 상황에 당면하게 된 것을 알 수 있군.
- ③ (가)의 ‘공납’을 유용하려는 것에서 이익을 위해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를, (나)의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에서 불행한 결과를 예단하는 운명론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가)의 ‘돈천이나 가졌더니’, ‘친구 대접 하였던가’에서 재물을 베푸는 데 인색한 물욕을, (나)의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에서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의 ‘일가’와 ‘친구’에게서 소외당한 꿈생원의 말로에서 무책임한 삶에 대한 경계가, (나)의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촉구하는 데에서 게으른 농부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는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머니의 변명은 끝끝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그 후로 나는 좀처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의 ㉠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졌던 탓이리라. ㉡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은 저주처럼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시커먼 어둠 저편에 숨어서 음산하기 그지없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나 숨어 있었다. 내 어릴 때 이따금 고개를 디밀어 들여다보면 마루 밑 저편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그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 술술 기어 나오던 그 눅눅하고 음습한 냄새 속에서도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내는 핏발 선 눈알을 번득이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건 어디서 묻었는지도 모르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까지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처럼 내게는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 낙인을